

책 빌리기 쉬워진 책의 도시, 전주

시, 시립-공립작은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가까운 공립작은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전주시민들은 이달부터 전주시립도서관이 소장중인 도서를 집에서 가까운 공립작은도서관에서도 빌려볼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전주시립도서관 11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28개관 등 39개 도서관에서 모든 시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사업으로 통합도

서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데 따른 것으로, 전체 도서관에서 보유중인 도서 목록과 대출 가능 여부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또 시민들의 하나의 통합회원증으로 전국 참여도서관 어디에서나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책이음 서비스'를 도입하고, 1인당 대출권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시민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책이음 서비스는 한 개의 통합회원증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

국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 13개 지역 1,040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어 시민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시는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홈페이지에서도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책이음 서비스에 신청 후 통합회원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출은 본인이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책이음서비스 이용규정에 따라 기존 가

족회원 대출 서비스는 중지하는 대신, 대출권수를 1인당 기존 5권에서 10권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책이음 서비스에 참여한 다른 도서관을 이용 1인당 최대 20권까지 빌려볼 수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시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개선을 꾸준히 실시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브라질 벨lem 음식창의도시 컨퍼런스 참가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방문단을 파견한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6일부터 13일까지 전 세계 18개 음식창의도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컨퍼런스에 실무진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파견한다.

'아마조니아의 뛰어난 품미 : 지역에서부터 지방, 세계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까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사업 추진 우수 사례를 보고하고, 회원도시 간 교류 협력 및 신규사업 발굴 자료 수집을 위해 네트워킹 회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우수 사례 보고를 통해 '2017 전주비빔밥축제'와 연계해 진행된 아시아권 음식창의도시 초청 쿠킹 콘서트와 음식관련 학교·학과 인턴십 등 인적교류 협의 추진 건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주의 다양한 음식문화의 우수성도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5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포파안과 청두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 민간협력 MOU를 체결한 것 외에도, 유네스코창의도시 연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세계에 전주를 알리는데 힘써 왔다.

또한, 유네스코창의도시 지정 이후 △안심먹거리 캠페인 △전주음식 계보 잇기 △명인명가 숨겨 잇기 △한식 전문 인력 양성교육 △향토음식 조리경연대회 등 전주 음식의 맥 잇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국제한식조리학교 지원 사업 등 교육 사업도 활발히 수행해 왔다.

/김민근 기자



보고, 체험하고, 배우는 '건강' 전주시보건소가 지난 3일 전주대학교 사대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통합건강증진 체험 학습터'를 운영했다.

'국제탄소페스티벌' 가시적 성과 거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독일 에코트슈렌과 탄소산업 교육훈련 업무협약 체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과 JEC 아시아 행사를 통해 연일 탄소산업의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행사 첫날인 지난 1일 세계적인 탄소복합재 클러스터인 독일 마이카본(MAI Carbon)의 에르트 슈렌(Erdert Schuen)과 한·독 양국 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르트 슈렌은 독일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탄

소융합기술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의 연구조합 회원사들의 탄소복합재 관련분야 인력양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3일에는 인도 탄소협회 사절단 20명이 전주를 직접 방문, 한국과 인도의 탄소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 탄소협회 사절단은 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상용화기술센터를 찾아 기술원의 기관현황 및 구축장비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한편, 전북도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주관해 지난 1일부터 3

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ICF)은 세계적인 복합재 전시회인 'JEC Asia 2017'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지난 1일 진행된 ICF 포럼에는 6개국 17명의 연사와 전 세계 탄소관련 기업 및 연구소, 관련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복합재 및 복합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각국의 탄소복합소재 관련 개발동향 및 시장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김민근 기자

'배움의 기쁨과 공부'

전주평생학습포럼 8일 개최

전주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담론의 장이 마련된다.

전주시가 오는 8일 오후 2시, 전주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학습담론 생산과 평생학습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7 평생학습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배움의 기쁨과 공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시민교육 차원에서 시민들의 배움과 공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기서 공부는 학습을 뜻하는 공부(공부)가 아닌 서로 돕는다는 신념(공부)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을 뜻하는 공부(공부)와 자기배려의 공부를 의미한다.

포럼은 엄기호 문화사회학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총북 침주에서 활동 중인 인문공동체인 해성인문네트워크의 이야기를 듣는 사례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본격적인 세션발표로 청년주거실험공동체 '우동사(우리동네

사람들)에서 활동 중인 김진선씨와 백현주 수원시 평생학습관 실장, 하정호 배우고 노닐며 함께 크는 청소년플랫폼 마당집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주제발표 후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펼친다.

2부는 '서로 배우는 집단지성의 장'을 주제로 시민인문세미나 발표방향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또, 인문세미나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쓴 인문세이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에 대해,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평생학습 포럼을 통해 평생학습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민인문세미나를 육성해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생학습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오는 7일까지 전주평생학습관 누리집(e.joni.go.kr) 또는 전화(063-281-5367)으로 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효자도서관,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시상식'에서 은상 수상

전주 서부신시가지 등 서부권 주민들의 지식·문화공간인 전주시립 효자도서관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됐다.

지난 3일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도서관은 2일 전북도가 주최한 '제18회 건축문화상 시상식'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돼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건축문화상은 건축과 교수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설계도면 분석과 철저한 현장검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3월 완공된 효자도서관은 주변을 감싸는 이바디 근린공원과 잘 어울려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여가장소로 인기가 높다. 또, 효자도서관은 녹색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로도 인증을 받아 친환경도서관으로도 정평이 나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효자도서관을 공식 개관하고, 서부권 시민들에게 독서장소와 모임장소, 인문학강연 등을 제공해 왔다. 특히, 효자도서관은 시민들이 몸과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힐링'을 특화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책 읽는 도시, 전주는 2017년 독서대전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전주 시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효자도서관에서 독서도 즐기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기회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